



봄바람 불 때,  
하얀 눈꽃을 피우는  
우리나라 최동단

# 울릉도

김정희 대구지방방청



섬 지역인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날씨를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예로부터 이곳 주민들은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날씨를 확인하고, 그다음 바다로 나갈 채비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날씨'라고 말한다. 이러한 울릉도에도 기상청이 있다는 사실!

### 섬 속의 작은 기상청, 울릉도관측소

울릉도관측소는 8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울릉도와 독도의 관측자료를 생산하고, 중요한 기후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다. 섬 주민에게는 날씨정보가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뱃길이 되어주기도 하고, 척박한 땅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은 역할도 한다. 올겨울 울릉도에는 역시나 많은 눈이 내렸다. 1m가 넘는 폭설로 겨울 왕국의 면모를 보인 울릉도. 눈이 오면 관측소는 여느 때보다 바쁜 하루를 시작한다.

그렇다면 눈은 어떻게 관측할까? 가장 먼저 관측자들은 목측으로 눈 현상을 관측하고 지정된 관측장소로 가서 적설판에 쌓인 눈의 높이를 측정한다. 흰색의 적설판 위에 눈금이 부착된 적설척이 꽂혀 있는데, 이 적설척을 이용해서 눈이 쌓인 높이를 측정하고, 적설량을 기록한다. 하지만 울릉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적설판 위에 눈도 고르게 쌓이지 않아 적설척 주변을 자로 여러 군데 재어 평균치를 구해서 관측한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관측은 결코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 흔들리는 벚꽃 속, 떨어지는 하얀 눈꽃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 햇살이 고개를 내미는 3월. 육지에서는 봄맞이가 한참이지만 울릉도는 아직도 겨울을 품에 안고 있다. 그렇다면 울릉도에는 언제까지 눈이 내릴까? 평균적으로 마지막 눈 관측은 3월 30일이며, 작년에는 4월 22일까지 눈이 내려서 마지막 눈 관측을 했다. 육지에 봄바람 살랑이며 벚꽃이 떨어질 때 울릉도에는 하얀 눈꽃이 떨어진다.



###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생생한 기상정보

하얀 눈이 예쁘다고 해도 한 번에 많이 내리면 폭설이 되고, 강풍과 한파와 더해져 순식간에 위험기상으로 변해버린다. 울릉도관측소는 잦은 눈과 대설로 겨울이면 비상상황이 되기 일쑤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일주일간 눈이 계속되던 날, 변덕스런 날씨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최대한 선제적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했다. 대설, 강풍과 풍랑 등 위험기상이 예상되면 울릉도관측소에서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수시로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울릉군과 해양경찰서, 119안전센터, 해군과 공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그리고 멀리 독도에 위치한 독도경비대와 독도등대까지 기상정보를 공유하여 재해 ZERO에 도전하고 있다. 울릉군에서는 방재업무에 기여한 성과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 변덕스런 날씨,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내일은 걸어서 출근해야겠구나, 눈이 또 얼마나 쌓였을까? 울릉도관측소 직원들은 폭설이 내리면 아침 일찍 집을 나와 걸어서 관측소가 있는 산 중턱까지 올라와야 한다. 무릎까지 폭폭 쌓여 있는 눈을 한 발 한 발 떼어가며 한 시간이 넘게 걷고, 때로는 눈 위에 잠시 쉬기도 한다. 힘들게 출근하면 몸도 마음도 이미 기진맥진! 숨 한번 돌리면 다시 눈 관측을 시작하고 관측장소 주변 눈도 치워야 하지만,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눈 위를 걷는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설렌다. 내가 걸어 온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찍힐 때면, 새로움이 주는 설렘과 함께 건강도 챙길 수 있다며, 지칠만한 순간 오히려 힘을 내게 된다.

### 고마워요! 눈도 마음도 녹아드는 따뜻한 말

대설 비상근무가 연속되고 한파까지 겹쳐 공공 얼어버린 물, 눈에 넘어진 상처가 늘고, 오랜 시간 바깥도 끔기고. 우유도 식자재도 텅 빈 마트,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었던 겨울이 지나고 있다.

“울릉도관측소 덕분에 올겨울도 재해 없이 잘 이겨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섬사람들이 전하는 꾸밈없는 감사의 말과 따뜻한 메시지 덕분에 울릉도에 근무하고 있는 이 순간, 오늘도 작은 보람을 느낀다. 변덕스러운 날씨를 품은 척박한 섬, 자연의 이치를 하나씩 배우며 평범한 것이 주는 소중함을 느끼는 나날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